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재질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광주구장의 카펫형 인조잔디 때문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KIA 외야수 이용규가 지난 7월 광주 구장서 경기 도중 부상을 입고 그라운드에 누워있는 모습. /KIA타이거즈 제공

### 무등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 부상 잦아 교체 시급

KIA타이거즈의 홈 구장인 광주구장에 깔린 '카펫형 인조잔디'가 선수들의 부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천연잔디 수준인 '필드터프(Field Turf)'형 인조잔디로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로야구 8개구단 구장중 유일하게 카펫형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광주구장은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인조잔디의 재질 탓에 선수들의 부상은 물론 소나기만 내려도 물이 빠지지 않아 경기가 취소되는 등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슬라이딩이나 수비를 하다 넘어졌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 여름철만 되면 모든 선수들이 광주구장의 경기를 꺼리고 있다.

카펫형 인조잔디가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고 지열을 그대로 반사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그라운드의 온도를 높여 플레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체감온도만 40도가 넘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무더위가 한창일 때는 고무타는 냄새까지 그라운드를 뒤덮는다.

여기에 소나기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나마 경기도 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30분으로 예정됐던 광주 한화-KIA전의 경우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내린 소나기 때문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같이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자, 최근 대전과 대구구장이 천연잔디처럼 부드러운 '필드터프' 인조잔디로 교체했고, 아마추어 야구장인 인천도원구장과 송도구장, 부산구덕구장, 군산구장 등도 '필드터프' 인조잔디로 교체 또는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광주구장을 운영·관리하는 광주시만 유독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연한이 8년인데 이제 겨우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시에서도 교체를 검토했으나, 예산낭비 등의 반대여론도 있어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필드터프형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와 비슷한 색상에 재질도 부드러운 최고급 제품으로 물리적 성질이 천연잔디의 95%수준이다. 공사비는 13억원 안팎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금주의 프로야구

이제는 더 이상 몰려설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4일부터 우천으로 취소된 잔여 경기 일정에 들어간다.

하위권에선 KIA와 현대, 롯데가 자존심을 건 6위 다툼을 벌이고 있고, LG, 한화, 삼성은 4강권 확정 여부를 놓고 피파리는 승부에 돌입했다.

#### KIA, 두산·한화와 우천리크

특히 4강권 싸움은 흥미진진하다. 프로야구 하반기 뜨거운 4강 경쟁을 유발했던 LG 트윈스는 이번 주 홈그라운드인 잠실구장에서 운명의 5연전을 펼친다.

지난 주 좌측의 5연승으로 4위 한화의 턱 밑까지 추격했던 LG는 주말 한화와의 2경기를 모두 패해 다시 2.5게임차로 벌어진 상태. 2.5게임이면 금방 따라잡을 듯 보이지만 막판 페넌트레이스에서는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간격이다.

20경기를 남겨둔 한화는 앞으로 '반타작'

## 가을잔치 못가는 호랑이 “그래도 꼴찌는 면해야제”

승부를 할 경우 최종 성적은 65승59패2무로 승률 0.524가 된다. 반면 16경기를 남긴 LG가 한화보다 앞서기 위해선 최소한 11승5패를 해야 64승57패5무로 승률 0.529가 된다.

11승5패를 승률 0.668로 시즌 내내 5할 언저리에서 오르내린 LG 입장에서는 분명히 힘든 목표다.

하지만 스포츠의 특성상 분위기를 탈 경우 막판 대역전극은 언제나 가능한 법.

LG가 역전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선 이번 주 6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LG는 4월 수원에서 현대와 1경기를 치른 뒤 잠실로 옮겨 1위인 SK와 3연전, 주말에는 3위

삼성과 2연전을 갖는다. 한화도 지난 주말 LG를 상대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 주에도 빠듯한 6연전이 기다리고 있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 한화·LG, 4강권 싸움도 큰 관심

2위 두산에 1.5게임, 3위 삼성에는 0.5게임차로 따라붙은 한화는 주중에 예고된 꼴찌 KIA와의 3연전을 통해 상위 도약을 노릴 심산이지만 탈꼴찌를 목표로 잡은 KIA가 '고춧가루 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3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63	44	5	0.589	-	3패
2	두산	59	50	2	0.541	5.0	1패
3	삼성	56	49	3	0.533	6.0	2승
4	한화	55	49	2	0.529	6.5	4승
5	LG	53	51	5	0.505	9.0	2패
6	롯데	50	59	3	0.459	14.0	1승
7	현대	46	60	1	0.434	16.5	1패
8	KIA	45	64	1	0.413	19.0	3승

KIA는 최근 투·타의 집결력이 살아나면서 7경기에서 6승1패를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KIA는 내친김에 2.5게임차인 7위 현대를 누르고 5게임차 6위인 롯데마저 넘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KIA는 우선 우천리크 첫 날인 4일 잠실 두산전에 에이스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워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KIA는 5~7일엔 대전으로 옮겨 한화와 3연전을 치른다.

지난 주 SK를 상대로 예상밖의 2승을 쓸어담은 삼성은 한화와 첫 경기를 치른 뒤 현대, LG와 각각 2연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중동 심판 핸드볼 편파 판정

## KOC, 강력 대응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핸드볼 편파 판정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즉각 항의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진상조사를 요구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 OCA에 즉각 항의, IOC엔 진상조사 요구

KOC는 3일 핸드볼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벌어진 중동 심판의 편파 판정과 관련, 셰이크 아마드 알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및 하산 무스타파 국제핸드볼연맹(IHF) 회장에게 항의의 서한을 보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KOC는 또 IOC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인 아메드 알 파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왕자가 수장으로 있는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베이징올림픽 예선 심판배정과 관련된 국제핸드볼연맹(IHF)의 지시 공문까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 男핸드볼 '분노의 공격'

#### 카타르 상대 35-14 대파

중동 심판의 편파판정에 분노한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카타르에 맹폭을 퍼부었다.

김태훈(하나은행)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스카이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핸드볼 아시아지역 예선 풀리그 2차전에서 독일 심판의 공정한 판정 속에 카타르를 35-14, 무려 21점 차로 대파했다.

지난 1일 노골적인 편파판정에 휘말리며 쿠웨이트에 20-28로 분패했던 한국은 이로써 1승1패로 준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국제핸드볼연맹(IHF) 자체 예선 출전권에 대한 희망을 살렸다.



## 한국 여자 2인조 '금'

### 세계볼링선수권 대회 사상 첫 쾌거

한국 여자 볼링 대표팀이 2007 세계여자볼링선수권대회 2인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진아(대전시청)-남보라(서울시실업관리공단) 조는 3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끝난 대회 2인조 경기에서 6게임 합계 2천804점(평균 233.7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2인조에서 1위에 오르는 것은 1979년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진아-남보라 조는 또 여자사상 최고 점수를 뽑아내며 2003년 잉글랜드가 세운 종전 여자 2인조 신기록(합계 2천737점)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한국의 김여진(벨인퍼컴)도 개인영(경희대)과 짝이 돼 2천787점(평균 232.3점)을 치며 2천729점(평균 227.4점)을 기록한 미국을 따돌리고 준우승을 차지, 은메달 한 개를 추가했다. 특히 김여진은 6게임 중 두 번째 게임에서 10차례의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커로 처리, 대회 첫 퍼펙트 게임을 작성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

근대 5종 '힘찬 비일' ◀ 3일 경기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벌어진 제26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 대회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대구시체육회 남동훈이 말 '력'을 타고 힘찬 도약으로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4일(화)  
▲메이저리그(토론토-보스턴) (07:55·Xports)  
▲실업연맹기 양궁대회(14:10·

KBS1)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미우리)(17:50·SBS 스포츠)  
▲프로야구(두산-KIA)(18:30·MBC ESPN)

**특약실업**

특약실업이란...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special employment services)

**바지루의 기쁨**

바지루의 기쁨... (text continues with an advertisement for a clothing brand)

1577-2787